

스쿼시 심판들이 경험하는 판정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이병혁, 이소미*
상명대학교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ward The Problems of Squash Referee's Decision Making Experience

Lee, Byung-Hyuk, Lee, So-Mi*
Sangmyu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스쿼시심판이 경험하는 판정어려움을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심판이 처해 있는 상황과 판정 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근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력 10년 이상의 스쿼시 전문가 중 2016년 대한스쿼시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심판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참여관찰 및 비구조적·반구조적 심층 면담을 병행하여 수집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 4단계에 따라 ‘개인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사회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환경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구성요소로 통합하였다. 스쿼시심판의 판정에 대한 어려움들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의미로 함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심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화된 판정을 기대하기 위해 판정주체자인 심판들의 처우개선과 심판들의 지속화,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 스쿼시, 전문심판, 판정어려움, 심층면접, 현상학적 접근

Abstract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This space is for the abstract of your study in En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squash referee's decision by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Giorgi. With such approach, this paper investigated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fficultie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referee, and then argues the needs for eliminating such causes. Five referees were recruited as the study participants, among the experienced referees with more than 10-year experience and 2nd grade certification, issued by the Korea Squash Feder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between June 2015 and July 2016. Participatory observation,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Following Giorgian four-step phenomenological analysis, all transcribed interview data were categorized into three components—‘problems from the individual situation’, ‘problems from the social situation’, and ‘problems from the circumstantial situation’. Although the referees are one of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game, their working condition is far from the ideal, as observed in the problems above. Therefor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judgement, it is most important to reward the referees, who are the subject of the decision, with better economic treatment. Such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referees is also highly related with the reproduc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the referees.

Key Words : Squash, Professional referee, Problems of referee's decision, In-depth interview, Phenomenological approach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2017S1A5B8058996)

*This paper was revised based on doctoral dissertation.

*Corresponding Author : SO-MI LEE(leessom@smu.ac.kr)

Received January 2,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요즘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의 잘못된 판정과 비현실적 제도의 도입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곧 치러질 평창동계 올림픽에서도 판정시비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고 나가는 주도자로서 심판은 경기에서 선수, 관중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판의 판정 하나 하나가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8]. 따라서 심판은 공정성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11].

경기 중에 발생하는 잘못된 판정은 선수들의 사기는 물론 응원하고 있는 관중들의 불만을 일으켜 경기의 흥미를 반감시키며 특히 큰 대회가 치러지면 오심으로 인해 억울한 선수에 관한 기사가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스포츠경기에서 막강한 책임감과 함께 심판을 하나의 스포츠 직업군으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프로나 실업리그가 있는 종목에 한정된 이야기일 뿐 비인기 종목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사실상 비인기 종목에서는 심판의 보급 및 유지, 모집, 그리고 육성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왜 비인기종목에서의 심판의 상황은 왜 다른지, 그로 인하여 판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스쿼시 종목의 예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스쿼시에 대한 연구들은 동호인 관련 연구[14, 15], 엘리트스포츠로서의 연구[13], 기술 측면 연구[9, 12], 그리고 산업 관련 연구들[5, 7]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스포츠에서의 연구는 경기력이나 트레이닝방법 등 선수 중심의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떠한 현상을 보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으로 스쿼시심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서 심판이 처해 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부분의 어려움에 대한 기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심판판정의 어려움을 분석하여, 비인기종목으로서 스쿼시 심판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그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스쿼시 경기

를 심판할 때 판정에 대한 심판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그 근원과 본질적 구조를 알아보고, 합리적 심판제도 정착 및 심판 보급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2016년 대한스쿼시연맹 등록되어 있는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2급 이상의 자격 보유 심판 5명을 유목적적방법을 활용하여 다음의 Table 1과 같이 선정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Division	Gender	age	Judging career	Career as player
G. J. Kim	Male	46	16y	3y
J. L.. Lee	Male	42	12y	3y
I. K. .Park	Male	42	10y	4y
S. S. Choi	Male	41	11y	3y
K. K. Ha	Male	41	11y	3y

2.2 조사도구 및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5년 6월부터 1년간 수차례 참여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를 만나 1차적으로 비구조적 심층면담을 가졌고, 2차적으로 반구조적 심층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 4단계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6, 10].

2.4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원자료의 분류와 해석한 결과가 정확성과 해석상의 차이가 없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내적타당도를 높였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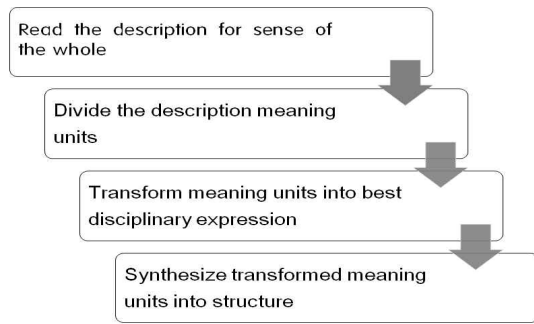


Fig. 1.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 of Methods Step 4

3. 결과

3.1 개인적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심판경험에서 판정의 어려움 중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 말하였고, 의미를 요약하는 단계를 통하여 하위범주를 사자성어로 분류하였다. 이는 과유불급(過猶不及), 만시지탄(晩時之歎), 자기관리(自己管理)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는 생리적(生理的) 어려움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고정관념(固定觀念), 선입지견(先入之見), 토적성산(土積成山), 보상판정(補償判政)은 심리적(心理的) 어려움으로 의미를 구분하였다.

3.1.1 신체적 어려움

좋은 경기를 위해서 선수만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기에서 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심판은 정확한 타이밍에 신속한 판정을 위해 주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판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신체적 어려움으로 시험 당일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여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1) 과유불급(過猶不及)

본 연구참여자는 적게는 하루에 한경기에서 많게는 5경기 이상을 소화하게 되어 경기가 많을 때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그에 대한 불만을 표하였다. 이러한 딱딱한 경기 운영으로 인하여 심판들은 신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심판판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판단력이 저하됨으로서 경기의 흐름을 빠르게 읽지 못하게 되어 경기 중에 선수들의 어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판의 주의집중력의 저하는

매끄럽지 못한 경기의 진행으로 이어져 선수들에게 불신을 야기시킨다.

“사실 하루에 보는 경기 수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참여하는 심판이 많이 없으니 어느 정도 감안하고 심판을 보긴 하는데 언제한번은 제때 심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점 심때를 넘긴 적도 있어요. 그땐 정말 피곤하고 경기에 집중이 잘 안되더라구요”(박일관)

“오전 심판을 볼 때와 오후에 심판을 볼 때는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구요. 중략...또 심판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경기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심판 보는 게 싫어저요.”(하객관)

(2) 만시지탄(晩時之歎)

스쿼시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경기로서 선수들의 체력 향상과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스쿼시 경기의 경우 ‘렛’이 주워질 경우 그 랠리를 다시 해야 함으로 ‘렛’의 요구가 많을수록 경기시간은 더 길어 질 수밖에 없다.

“전에 한번은 준결승 경기 심판을 봤는데 둘이 백중세인데다가 한 선수가 LET을 많이 요구하니깐 경기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구요. 정말 2시간 가까이 경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땐 정말 피곤하고... 다음 경기에 또 심판 볼 생각을 하니 힘들더라구요.”(이중림)

“진짜 어필 많은 경기나 오래 치는 선수들 경기 보면 힘들죠. 그래서 저는 후반으로 갈수록 LET 어필에 대해 잘 안 받아줘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서요. 경기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특히 1심제 일 때는 정말 힘들어요.”(최신숙)

(3) 자기관리(自己管理)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질병이나, 자기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시험 당일에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임했던 경험이 다수 있었다.

“술 먹은 다음날 심판 볼 때 많이 힘들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타지에서 오랜만에 선·후배들 만나면...중략...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 전에는 금주하려고 노력해요.”(최신숙)

“대회기간에 감기가 걸려 정말 죽을 것 같은 적이 있었어

요. 대신 할 심판이 없어서 약을 먹고 심판을 받는데 멍하고 졸립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때 오판이 좀 있었거든요. 선수들에게 미안하죠.”(하객관)

3.1.2 심리적 어려움

스포츠 현장에는 선수, 지도자, 심판, 관중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심판은 경기의 운영과 수행의 유연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이 심판의 심리적 상황이다.

(1) 고정관념(固定觀念)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현장 경험으로서 많은 선수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기의 참여하는 선수들의 경기 전적 및 기존 대회에서 보여 준 실력수준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판정 시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 배정표를 보잖아요. 그럼 어려울 것 같은 경기, 쉬운 경기 감이 와요. 그걸로 오늘 일진 좋다. 말하는 심판도 있고요. 심판을 어느 정도 보다보면 선수들 실력을 어느 정도 아니까..”(박일관)

“저희 정도 경력이 있는 심판들은 선수들의 장, 단점부터 실력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누가 이기고 질지 대충 알죠. 평상시 전적도 있으니까. 큰 변수가 없으면 그 선수가 이기죠.”(최신숙)

(2) 선입지견(先入之見)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경기가 치러지거나 기본적인 매너를 갖추는 선수가 나왔을 때 그것이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스쿼시 심판들은 예의와 매너를 지켜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경기 중 예의를 잘 지키는 선수들을 선호하였다. 또한 저돌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저는 운동선수는 예의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기 중에 어필을 정말 예의 없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중략... 심한 선수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영향이 아주 없을 순 없는거 같아요!”(박일관)

“경기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심판들도 스타일이 다르다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열심히 치는 스타일이 좋아요 그런 친구한테는 크진 않지만 좀 더 판정이 후해지는 것 같아요.”(하객관)

(3) 토적성산(土積成山)

심판들은 기본적으로 판정을 내릴 때 오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 경험이 적을수록 불안감은 고조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기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남자선수들의 경기에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심판의 경력에 따라서 판정을 신뢰하는 경우도도 있어 신입심판들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여자선수들의 경기를 심판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쌓아 전문심판들처럼 어려운 경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동호인 출신 심판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선수 출신보다 판정에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많이 경험해야 비슷해 진다고 할까.. 물론 심판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나요.”(이중립)

“많은 경험은 자신감 상승과 비슷해요. 신입심판들은 엄청 떠는 것 같고 집중은 잘하는 것 같은데 판정 할 때 판정 내릴 때 보면 어리버리하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죠.”(박일관)

“감 떨어진다고들 하잖아요. 전에 한 1~2년 심판 안 보다가 심판을 보는데 잘 안보이더라고요. 경험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최신숙)

(4) 보상판정(補償判政)

경기의 심판을 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오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심판 본인도 판정이 틀렸음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미안한 마음에 보상을 하기 위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심판들은 자신의 판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보상수준의 판정을 대신 내리게 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 번에 오심으로 그치지 않고 ‘보상판정’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오심을 범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이다.

“판정을 내리고 틀린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다음 판정 때 그 선수에게 좀 더 유리하게 판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땐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구요.”(최신숙)

“잘 못 판정했다고 생각하면 그 선수에게 미안하죠. 그래도 그 걸 보상해 줄 수 없으니 다음기회에 하는 거죠. 뭐”
(하객관)

3.2 사회적(社會的) 어려움

3.2.1 관계적(關係的) 어려움

(1) 고립무원(孤立無援)

스쿼시선수들은 경기를 하다가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심판에게 어필을 하게 된다. 심판은 이러한 어필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사회적 관계들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판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판은 공정함을 위해 개인적인 관계를 배제해야 한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좀 더 친한 지도자가 가르치는 선수나 친한 선수가 있으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이중립)

“시합장에 가면 심심하다 못해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한 선·후배를 만나도 인사 외에는 따로 이야기 하기가 어렵거든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난감하죠.”(하객관)

(2) 대중심리(大衆心理)

스쿼시 심판들의 판정에 관중의 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의 규모는 크나 관중의 숫자가 많지 않은 선수권대회보다 많은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호인대회에서 더 판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스쿼시의 특성상 스쿼시 심판들이 관중과 가까운 위치에서 경기장 안의 판정을 내리게 되므로 관중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쿼시만큼 관중의 영향을 가까워서 받는 종목도 없을거예요. 사실 스쿼시 심판은 관중 속에 있잖아요. 제가 판정을 내리기도 전에 관중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약간 짜증도 나고 내 판정과 다를 땐 순간적으로 혼동도 되더라고요.”(김공정)

“꼭 관중 중에 빨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해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

요. 아무래도 판정이 다를 땐 눈치가 보이긴 하죠. 그냥 제 의견대로 밀어부쳐요.”(이중립)

3.2.2 교육적(教育的)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판정을 내리는 것에는 시합 현장 외에도 규정을 알려주는 교육이나 선임 심판과의 대화를 통한 판정의견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1) 심판 교육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대한 이해와 주기적 교육을 통한 보완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이 강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연구참여자들은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 연수회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올바른 판정문화를 위하여 지속적이며 체계가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수회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방에서 연수회 한번 참가하려고 만나절을 보내요. 그런데 가보면 별거 없는거예요. 내려갈 때 허무 할 때가 많았어요.”(이중립)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연수회에 가보면 나는 알고 있지만 처음 온 후배들이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것 같아요”(박일관)

(2) 상호작용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 외에 경기 종료 후 심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심판들로 하여금 판정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음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심판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현장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

“외국에 심판으로 나가보면 그래도 피드백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몰랐던 것도 배우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 알게 되기도 하고...”(김공정)

“심판들끼리 심판 끝나고 판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모두가 판정에 확신이 있어서 내리는 경우도 드물고,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자리가 생기면 도움이 많이 돼요.”(이중립)

3.3 환경적 어려움

3.3.1 처우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스쿼시 심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심판석의 위치와 처우문제(處遇問題)에 대해 어려움을 말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 정저지와(井底之蛙)

심판석의 위치는 국제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 스쿼시 사정상 때 대회 이를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스쿼시 전용경기장은 전국에 5곳 정도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지방에 설치되고 있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스쿼시는 심판보기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코트 밖에 있다 보니까.. 시설여건이 좋은데에서만 경기가 이뤄지는게 아니니까.. 관중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그렇고 등 바로 뒤에서 응원 크게 할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이중립)

“심판 볼 때 위치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선수에 가려서 잘 안 보일 때는 남감하죠. 그냥 LET선언하면 되는데 괜히 제가 실수해서 LET주는 것 같아 맘이 불편해요.”(최신숙)

(2) 외화내빈(外華內貧)

스포츠기사를 보면 심판이 돈으로 매수되어 부정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심판 개인적 성품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심판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우선적으로 프로리그나 실업리그가 없는 종목들의 심판들은 개인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대회가 있을 때만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저 언제까지 심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심판 참여가 힘들어요. 센터에서 눈치도 보이고 대회 참가 할 때 좀 고민되요.”(이중립)

“심판! 누가 보면 대단한 거 하는지 아는데 막말로 일용직 이죠. 심판 참여해달라고 연락오면 솔직히 고민되요. 의리로 하는거지. 뭐 있겠어요.”(하객관)

3.3.2 행정적 어려움

(1) 혼용(混用)의 어려움

스쿼시 심판제도는 1심제, 2심제, 3심제가 있다. 또한 요즘에는 좀 더 명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비디오 분석

(Video Review)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합의 규모에 따라서 심판제도가 혼란스럽게 선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비디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심판의 판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2) 배정의 어려움

심판을 배정할 때는 친분관계나 경기진행상황 등에 맞게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의 배정은 스쿼시 종목 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사실 공정한 심판배정을 위해선 선수, 지도자와의 학연, 지연 등 친분관계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심판원의 부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판배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때 동향인데 심판에 배정될 때도 있어요 배정위원에게 바꿔 달라고 했는데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심판을 보는내내 신경쓰였어요. 괜히 상대선수가 오해할까봐...”(이중립)

“경기가 오래 걸려 미뤄지면 남감하죠. 쉬지도 못하고 다음 경기에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피로감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하기 힘들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박일관)

4. 결론

이 연구는 스쿼시심판이 경험하는 판정어려움을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심판이 처해 있는 상황과 판정 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근원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스쿼시 심판이 경험하는 판정 어려움이 의미하는 구성요소 3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인적 어려움은 신체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과유불급과 만사지탄, 그리고 자기관리로 분류한 신체적 어려움과 고정관념, 선입지견, 토적성산, 그리고 보상관정으로 분류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사회적 어려움은 관계적 어려움과 교육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관계적 어려움은 고립무원, 대중심리로 분류하였으며, 교육적 어려움은 심판교육과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환경적 어려움은 처우의 어려움과 행정적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우의 어려움을 다시 정저지와와 외화내빈으로 분류하였고, 행정

적 어려움은 혼용의 어려움과 배정의 어려움으로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는 심판에게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등의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처럼 스쿼시 심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인 ‘외화내빈’에 대한 문제가 우선 처리되어야 판정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경기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REFERENCES

- [1] B. H. Lee & S. M. Lee. (2017). An Inductive Analysis for Squash Player's Cognizance of Referee Judge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30(3), 95-106.
- [2] B. H. Park.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Marital Conflicts Experienced by Female Christian Counseling Expe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Theology University.
- [3] C. H. Park. (2005). Analysis on Sport Experience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Korea sport research*, 16(4), 1095-1102.
- [4] D. J. Lee. (2008).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Experience Learning for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 [5] Elliott, B. (1996). The role of upper limb segment rotations in the development of racket-head speed in the squash forehand, *Journal of Sports Science* 14, 159-165.
- [6] G. R. Shin.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 [7] H. B. Kim & B. J. Kim. (2017). The Impact of Color on the Glove Pitcher Hitting a Batter Concent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3), 405-411.
- [8] I. J. Hwang. (2007). *The Equity-examination of Taekwondo Referee & Refree-educ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 [9] K. K. Cho & Y. S. Kim. (2007). The Kinematic Analysis and the Study of Muscle Activities during Backhand Drive in Squash, *Journal of Sports Biomechanics*, 17(3), 11-21.
- [10]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11] M. H. Joe. (2008), *A Qualitative Analysis on Expertise of DanceSport Jud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 [12] S. E. Kim & S. K. Kim. (2014). A Kinematic Analysis of Upper Extremity during Squash Backhand Drop Sho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1(5), 681-691.
- [13] S. Y. Han. (2009). The Relationship of Coaching Type on Squash Players'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8, 149-157.
- [14] Y. K. Kim & M. R. Lee.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exercise adherence, exercise emotion and exercise addiction in squash participa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9(2), 299-306.
- [15] Y. K. Yeo & Y. K. Kim. (2008). The relationships among goal orientation, degree of maturation and sport coping of badminton playe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11, 235-244.

이 병 혁(Lee, Byung Hyuk)

[정회원]



가대표팀 코치

- 2017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스포츠ICT융합연구소 특임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서울스쿼시 연맹 부회장
- 1998년 9월 ~ 2001년 12월/2005년 1월 ~ 2006년 1월 : 스쿼시 국

- 1994년 3월 ~ 1997년 7월 : 스쿼시 국가대표 선수
- 2017년 2월 : 상명대학교(체육학박사)
- 관심분야 : 스쿼시, 스포츠교육학
- E-Mail : leesquash@hanmail.net

이 소 미(Lee, So Mi)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부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스포츠ICT융합연구소 소장
- 2010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전공(이학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 스포츠ICT
- E-Mail : leessom@smu.ac.kr